



益山彌勒寺조사단

全北 益山군 金馬면 미륵사지에서 삼국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금동입상소불 1점과 금동판 불 1점, 고려·이조때의 암막새와·명문와·자기류 등 1천여 점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宗廟놀이마당 11月16日 開放

서울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종묘앞 공원(종묘놀이 마당)이 준공되어 11월 16일 일반에게 개방됐다. 사방 어느 곳도 담이 없는 것이 특징인 이 공원은 지난 83년부터 종묘 주변의 불량 주택 288동을 철거하고 269억원(보상비 255억원 포함)을 들여 조성한 것. 총 면적은 4만 2천㎡(1만 2천 7백평)인데, 시민 휴식 공간지로서 또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꿈의 동산」 착공

서울 동북부 지역의 위락공원이 될 「꿈의 동산」 조성공사가 11월 15일 도봉구 번동 현지에서 착공됐다. 꿈의 동산은 도봉구 번동 산28의 3 일대 35만 6천 6백40㎡(10만 7천 8백83평)에 일우공영(주)이 107억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 공원에는 청소년 모험 시설 등 48종 97개 시설이 세워지며 광장구역, 민속구역, 운동시설 구역, 어린이 놀이터, 휴식시설 구역과 잔디 광장 등이 마련된다고.

「박제옹」남획, 濟州평 수난

제주산 장끼박제가 일본에서 인기를 모아 1개당 최근 3만엔(12만 6천원)에 거래되자 일인엽사들이 이에 자극받아 평 사냥이 허용된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중 제주를 찾은 일본 엽사는 작년의 동기간 151명 보다 35%나 많은 203명에 달했다 한다.

國土開發研究院 廳舍 移轉

國土開發研究院(院長 黃明燦)은 지난 10월 28日 汝矣島洞10-2 泰榮빌딩으로 廳舍를 移轉하고 同月 29日 金聖培 建設部 長官을 비롯하여 金壽鶴 土開公社長, 弘益大 朴炳柱 教授, 建設部 鄭淳虎 國土計劃局長 및 同院首席級 以上の 幹部 參席裡에 現판식을 가졌다. (代表電話 : 784-2560~69, 784-3020~25).

肉食恐龍 발자국 世界서 처음 發見

慶南 巨濟郡 一運面 旧助羅里서 南東으로 4.5km 떨어진 外島(밖섬)에 붙은 섬에서 1億年前 中生代 白堊紀 前期에 서식한 것으로 推定되는 肉食恐龍인 데이노니쿠스(DeiNonyChus)의 발자국 3 개와 초식공룡인 이구아노돈(Iguanodon), 하이프실로포돈(Hypsilophodon)의 발자국 2백 여개가 釜山 地質학과 金恒默 교수팀에 의해 發見되었다. 学界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이노니쿠스」 공룡의 발자국은 지난 69년 美国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및 慶北 義城郡 塔里에서 뼈가 發見된 以來 肉食恐龍의 발자국으로선 世界 始初의 發見이란 点에서 學術적으로 큰 意義를 갖게 되었다. 大邱의 崔在龍씨(37) 提報로 이 발자국을 發見한 金교수는 外島에서의 이번 공룡 발자국 발견으로 咸安의 咸安層, 蔚山の 蔚山層, 大邱의 大邱層, 固城의 鎭東層, 巨濟의 長木層 등이 白堊紀 前期와 同一層이란 对比가 可能해졌다고 밝혔다.

〈外島는 잘 保存해야한다고 主張〉

外島는 觀光地로 開發할 계획이 서있는데 重要한 學術的 資料가 될 이 공룡의 발자국은 잘 保存돼야 한다고 金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此項 11. 15. 大邱每日신문 參考)

南海岸 一帶의 朝鮮城 破損一路

남해안 일대의 해안선에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된 조선성과 壬亂때 일인들이 세운 倭城 가운데 倭城들은 대개가 사적으로 지정받아 보존되고 있는 반면 朝鮮城은 멸실되고 있다. 史蹟으로 지정된 倭城들은 蔚山鶴城(사적 9호)을 비롯해 機長의 竹城里城(52호) 勿禁의 甌山城(63호), 熊川의 安骨里城(53호), 泗川 船津里城(50호), 金海 竹島城(51호), 昇州 新城里城(49호), 龜浦 倭城(6호), 釜山鎭城(7호) 등 9個所.

이에 반해 國境 요새지로 軍隊를 주둔시켰던 朝鮮城(鎭城)은 그 흔적도 찾아 보기 힘들 만큼 파괴되었다. 兵馬節度使가 주재한 主鎭인 蔚山の 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兵營城)을 비롯, 巨鎭(僉使주재)인 加德, 張助(南海島)와 諸鎭(萬戶주재)인 天城浦(가덕도), 知世浦(거제도), 平山浦(남해도), 永登浦(거제도), 齊浦(웅천), 塩浦(울산) 등 10余個所의 城은 형편없이 파괴됐고 助羅浦(남해도), 蛇梁津(통영), 包伊浦(양산), 西平浦(양산), 多大浦(부산)의 城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例를 들면 蔚山の 倭城인 鶴城은 사적으로 指定, 그런대로 보호되고 있는 반면, 건너편의 朝鮮城(主鎭)인 兵營城은 壬亂 당시의 倭將 加藤清正이 鶴城을 쌓을 때 이 城을 허물도록 築

통에 크게 황폐한데다 그후 전혀 보호가 없어 흔적을 찾으려면 한참 헤매야 할 정도.

蔚山의 齊浦城도 보기 민망할 상태다.

(此項 11. 18. 中央日報文化面 參考)

가지고 가는것은 사진만을,
남기고 가는것은 발자욱만을.....